

Original Article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25, Vol. 38, No. 1, 61-81

ISSN(Print) 1229-0718
ISSN(Online) 2671-6542
<https://doi.org/10.35574/KJDP.2025.3.38.1.81>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초기 성인기 데이트폭력 가해의 관계: 분노의 매개효과와 관계 내 지각된 권력 및 성별의 조절효과

Received: January 15, 2025

Revised: March 08, 2025

Accepted: March 09, 2025

김한나¹, 이승연²

이화여자대학 심리학과/ 석사과정 졸업생¹, 이화여자대학 심리학과/ 교수²

교신저자: 이승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E-MAIL:
slee1@ewha.ac.kr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in Early Adulthood:
The Mediating Effect of Anger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Power in Relationships and Gender**

Hannah Kim¹, Seung-yeon Lee²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M.A.¹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²

ABSTRACT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데이트폭력 가해의 관계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분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이러한 관계에서 관계 내 지각된 권력과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이성 교제 경험이 있는 초기 성인기 남녀 455명의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관계 내 권력 수준을 더 높게 지각한 반면, 전체 데이트폭력 가해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분노, 데이트폭력 가해 간의 관계에서 관계 내 지각된 권력과 성별의 조절된 조절된 매개효과 유의하였다. 남성의 경우, 관계 내 지각된 권력의 수준과 상관없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분노를 거쳐 데이트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여성의 경우, 관계 내 지각된 권력 수준이 평균 이하일 때에만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였고 평균보다 높을 때에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 남녀에게 나타나는 데이트폭력 가해를 개인 내적, 환경적, 대인 관계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성차를 고려한 성별 맞춤형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데이트폭력 가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분노, 관계 내 지각된 권력, 성차



© Copyright 2025,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이전까지 데이트폭력은 연인 간의 사랑싸움으로 치부되거나 개인의 사생활 혹은 경미한 갈등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데이트폭력이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 상대방의 가족과 가까운 지인에게까지 보복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서 심각한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경찰청, 2022). 데이트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여 피해자가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보복 및 사생활 노출, 낙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실제 발생률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홍영오 외, 2015). 데이트폭력은 피해자가 특정될 수밖에 없으며 반복적이고 만성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2차 범죄 및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이영돈, 2018). 또한 데이트폭력은 깊은 친밀감과 애착이 형성된 대상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더 심각하고 장기적인 심리적 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반적인 폭력의 형태보다 개인의 정신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Lacey et al., 2013).

Erikson(1963)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 따르면, 초기 성인기의 발달과제는 자기 몰두에서 벗어나 타인과의 친밀감을 획득하는 것이다. 초기 성인기는 대인관계의 범위가 넓혀짐에 따라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시기이자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시기이다(Burger, 2006). 그러나 청소년기와 양적, 질적으로 다른 환경을 마주하게 되어 다양한 양상의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건강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연인관계에서도 마찬 가지이다. 즉, 연인관계 내에서 부적응을 겪고 갈등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게 되고, 폭력과 같은 방식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서경현, 2009). 초기 성인기에 형성된 데이트 행동은 이후에 형성하

는 관계뿐만 아니라 결혼생활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Cate et al., 1982). 따라서 초기 성인기의 데이트폭력 가해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한편, 데이트폭력 가해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데이트폭력의 정의가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그리고 심리적 폭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면서 여성 가해자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Hines & Douglas, 2014). 일부 연구에서는 여성의 연인관계에서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정서적 폭력에서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사회적 인식의 불균형이 여성의 폭력성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Dutton & Nicholls, 2005). Archer(2000)의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양측성 관점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많은 국내외 연구에서 데이트폭력 가해에서 성차가 유의하지 않거나, 예상과 달리 여성의 데이트폭력 가해가 더 빈번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래은 외,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기의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데이트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데이트폭력 가해는 주로 개인 내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에 의해 설명되어왔으며, 주로 애착, 가정 폭력, 아동기 학대 경험 등과 데이트폭력 가해의 관계가 검증되었다(문지혜, 정혜정, 2015).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 따르면, 부모의 강압적인 양육 태도는 자녀의 부적응적인 대인관계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친다. 한 개인은 어린 시절부터 관찰, 모방 그리고 강화를 통해 폭력적인 행동을 학습할 수 있으며 환경적 요인에 의해 강화되어 이를 효과적인 갈등 해결방식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Bandura, 1977). 또한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

은 자녀로 하여금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왜곡된 지각과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하여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유발한다(윤혜영, 강지현, 2015). 부모의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양육을 경험한 자녀는 그렇지 않은 자녀에 비해 신체적, 관계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이기도 한다(신현숙 외, 2012). 특히 부모의 심리적 통제(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는 자녀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자율성을 저하시키고 폭력적인 관계 패턴을 내면화하도록 할 수 있다. 부모로부터 심리적 압박을 받아 온 자녀들은 자신의 관계에서도 유사한 통제 전략을 사용하는데, 연인관계에 있어서 역시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며, 그 효과적 수단으로써 공격적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Nelson, 2002). 갈등상황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 방식이 폭력적인 양상으로 이어졌다면, 이러한 행동은 자녀의 내면에서 정당화되고 효과적인 문제해결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친밀한 관계 내에서의 폭력적 가해 행동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대인관계 문제, 공격성과의 관련성에서 더 나아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데이트폭력과의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설명하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데이트폭력 가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같은 환경적 요인을 넘어서 개인 내적 요인이 데이트폭력 가해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안귀여루, 2006), 환경에 의해 굳어진 개인의 정서적 요인과 데이트폭력 가해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부족하다(남귀숙, 2018). 일반 공격성 모델(general aggression model)에 따르면, 분노는 환경적, 상황적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폭력적 행동을 촉발한다. 이는 분노가 폭력적 사고와 감정을 강화하고 이를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매커니즘을 설명한다.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분노를 경험하며, 분노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여 공격성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속적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촉작되면 자녀는 분노를 안정적으로 쉽게 경험하는 성격을 지니게 되는데, 이는 대인관계에서의 적대감과 공격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Gordis et al., 2006). 자녀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의해 억눌린 분노를 내면화할 수 있으며(Chao & Aques, 2009),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높은 수준의 분노는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Bettencourt et al., 2006).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격의 형태로 굳어진, 특성 분노가 강한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에 대해 왜곡된 인식과 반응을 나타냄으로써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화를 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일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특성 분노를 보이는 개인은 광범위한 상황과 자극에 대해 분노를 더욱 자주 경험하기 쉬우며(양명희, 김은진, 2007),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역기능적인 방식으로서 폭력성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이홍, 김은정, 2012). 이러한 분노는 연인의 무관심, 비판, 갈등상황에서 과민하게 표출되어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Leonard & Senchak, 1993). 또한 사회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분노는 친밀한 사람들을 통해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Eckhardt et al., 1995), 이는 개인이 연인관계에 있어서 부적절한 분노를 경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폭력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리하자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경험한 개인이 쉽게 분노를 느끼는 안정적 성향을 지니게 됨으로써 타인을 통제하고 제압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분노와 같은 개인 내적 요인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같은 환경적 요인이 결합하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성을 예측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개인이 성장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초기 성인기 데이트폭력 가해 간의 관계를 분노가 매개하는지 살펴보자 하였다.

다만, 데이트폭력은 친밀한 두 사람의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인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분노 그리고 데이트폭력 가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분노는 공격성을 촉발하는 요인 중 하나일 수 있으나, 항상 일관적으로 데이트폭력 가해를 예측하지는 않으며 상황적 요인이나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Berkowitz, 1993). 특히 분노가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황적 맥락에 대한 인지적 해석이 중요하며, 개인은 그 해석에 따라 행동 양식을 결정하게 된다(Denson et al., 2012). 관계 내 권력의 불균형을 지각하는 것은 감정적 반응과 갈등을 악화시키고 폭력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으며 (Martín-Lanas et al., 2021), 연인 간 갈등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을 높인다. 즉 연인에게 분노를 표출할지 혹은 억압할지에 대한 결정은 관계 내에서 누가 얼마나 더 많은 영향력과 주도권을 지닌다고 판단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인관계 내에서 남녀가 지각하는 권리의 차이와 이를 둘러싼 사회 구조적 맥락은 데이트폭력 가해의 이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는 남성이 관계 내 권력을 가지는 것을 정당화 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높인다(Hunnicutt, 2009). 경제적 불평등 또한 이러한 연인 간 권력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사회적 요소로 설명된다(Postmus et al., 2012). 동시에,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은 남성이 관계 내 주도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이어져 데이트폭력 가해를 정당화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Messerschmidt, 2000). 이러한 사회 구조적 맥락과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에 의해 발생한 남녀의 권리 차이는 연인관계 내 지각된 권리(relationship power)에 기여하고, 이는 데이트폭력 가해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인관계 내 지각된 권리은 데이트폭력 가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개인이 관계 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대인 관계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분노가 데이트폭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조절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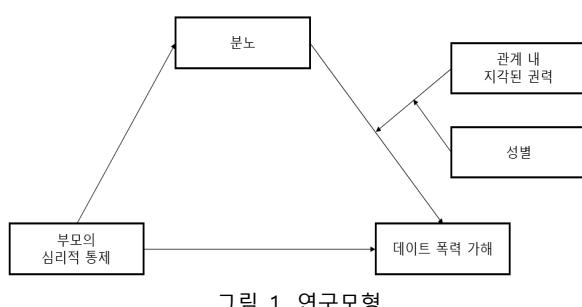
한편, 관계 내 지각된 권리와 데이트폭력 가해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Johnson, 2006). 일부 선행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자신의 지각된 권리 수준이 낮을 때 폭력을 행사하여 관계 내에서 자신의 권력을 만회하고 통제권을 회복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자신이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고 지각하는데 기인한다. 반면, 여성은 자신의 지각된 권리 수준이 높을 때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Dardis et al., 2015).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으로 규정된 역할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는 사회적 역할 이론(social role theory)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지배적이고 권력을 행사하는 역할로 기대되어 온 남성은 이러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지각하는 권리 손실로 인해 무력감을 경험하며 이를 극복하고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Anderson & Umberson,

2001). 반면 순종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기대되는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벗어나 더 주도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도록 여성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여성은 자신이 이미 권력을 확보했을 때 이를 행사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Langhinrichsen-Rohling, 2012). 따라서 성별은 관계 내 지각된 권력이 분노와 데이트폭력 가해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관계 양상에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분노를 매개하여 데이트폭력 가해를 예측하는 관계에서 관계 내 지각된 권력과 성별의 조절효과를 탐구하고자 한다. 즉,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통제가 만성적인 분노를 유발하고 이러한 분노가 데이트폭력 가해로 이어지는 과정이 관계 내 지각된 권력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기제가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데이트폭력 가해를 예측하는가?

연구 문제 2.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분노,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관계 내 지각된 권력과 성별의 조절된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2~30대 미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51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나, 교제 경험 이 없거나 교제 기간을 3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여 총 455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남자는 211명(46.4%), 여자는 244명 (53.6%)이었으며, 20대는 343명(75.4%), 30대는 112명(24.6%)이었다. 또한 지금까지 2~3명과의 이성 교제 경험을 보고한 연구 참여자가 206명 (45.3%)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적인 이성 교제 기간을 6개월~1년 미만으로 보고한 연구 참여자가 202명(44.4%)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연구도구

데이트폭력 가해

Straus 등(1996)이 개발한 갈등대처유형척도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 II)를 김경신과 김정란(1998)이 번안하여 수정하고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심리적 폭력 11문항, 신체적 폭력 7문항, 성적 폭력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유형은 경미한 수준의 폭력과 심각한 수준의 폭력이 절반씩 섞여 있는 상태이며, 더 흔하게 발생하는 심리적 폭력 문항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 전혀 아니다 ~ 5: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데이트폭력 가해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김경신과 김정란(1998)의 대학생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89, 본 연구는 .96이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

Barber(1996)가 개발한 심리적 통제 척도(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 PCS-YSR)를 최명진과 김은정(2018)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표현 제한, 감정 불인정(무효화), 애정 철회, 죄책감 유도, 비난, 불안정한 감정 기복 총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총 16문항), 단일 요인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이 입증되어(Barber, 1996; 최명진, 2010) 본 연구에서도 단일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5점 Likert 척도(1: 전혀 아니다 ~ 5: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명진과 김은정(2018)의 대학생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3, 본 연구는 .95였다.

분노

Spielberger, Krasner, and Solomon(1988)이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를 한덕웅, 전겸구, 이장호(1997)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Korean Adaptation of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K)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분노 경험에 해당하는 상태 분노와 특성 분노, 분노표현에 해당하는 분노표현, 분노억제, 분노표출로 이루어져 있으나(총 44문항),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 특성 분노를 측정하는 1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4점 Likert 척도(1: 전혀 아니다 ~ 4: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개인의 분노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덕웅, 전겸구, 이장호(1997)의 대학생 연구에서 특성 분노의 내적 합치도는 .82, 본

연구는 .93이었다.

관계 내 지각된 권력

Farrell, Simpson, and Rothman(2015)이 개발하여 타당화한 관계 권리 척도(Relationship Power Inventory; RPI)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현재까지 한국어로 번안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저자의 허락을 구하여 이중역번역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번역의 정확성뿐 아니라, 원척도 문항과 이중역번역된 문항 간 어의적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불일치가 있을 때 번역자 간 논의와 심리학 박사학위를 지닌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다.

Farrell, Simpson, and Rothman(2015)은 관계 내 지각된 권력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권력의 주체를 자신과 파트너로 구분하고 권력의 유형을 과정과 결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자기 결과, 파트너 결과, 자기 과정, 파트너 과정 총 네 가지의 하위요인을 구성하였다. 자기 결과는 연인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최종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능력이며, 파트너 결과는 연인관계에서 파트너가 원하는 최종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파트너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자기 과정은 연인관계 내 의사결정 과정이나 상호작용을 주도하는 자신의 능력을 의미하며, 파트너 과정은 연인관계 내 의사결정 과정이나 상호작용을 주도하는 파트너의 능력을 의미한다. 본 척도는 자기 결과, 파트너 결과 각 6문항, 자기 과정, 파트너 과정 각 4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7점 Likert 척도(1: 전혀 아니다 ~ 7: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파트너 결과 문항과 파트너 과정 문항에 대해서는 역채점을 실시한다. 총점이 높을수록 연인관계 내 지각된 자신의 권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Farrell, Simpson, and

Rothman(2015)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5, 본 연구에서는 .95였다.

연구절차

2024년 9~10월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2~30대의 미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앞서 연구 목적에 대한 설명 및 주의사항을 안내하였으며, 연구 참여 의사를 묻는 문항에 동의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IRB 심의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온라인 설문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응답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참여자의 자발적 동의 절차를 따르며 진행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5.0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통계 및 Pearson 적률상관분석 그리고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분노, 데이트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관계 내 지각된

권력과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 (2013)의 PROCESS macro model 18을 적용하여 조건부 과정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활용하였다.

결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기술통계 분석 결과(표 1),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인들은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 10 미만으로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였다(Kline, 2011). 남성과 여성 집단 각각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1), 집단에 상관없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분노($r_{남}=.80, p<.001, r_{여}=.78, p<.001$), 데이트폭력 가해($r_{남}=.75, p<.001, r_{여}=.53,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분노는 데이트폭력 가해($r_{남}=.66, p<.001, r_{여}=.58,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관계 내 지각된 권력과 데

표 1. 변인 기술통계 및 변인 간 상관

변인	1	2	3	4
1. 부모의 심리적 통제	-	.80***	.30***	.75***
2. 분노	.78***	-	.35***	.66***
3. 관계 내 지각된 권력	.09	.13	-	.25***
4. 데이트폭력 가해	.53***	.58***	-.07	-
<i>M(SD)</i>	38.80(14.91)	18.62(7.25)	87.65(23.87)	33.53(15.02)
왜도	.84	.57	.01	1.92
첨도	-.11	-.74	-.56	2.74

주. 대각선 위: 남성 집단($n=211$), 대각선 아래: 여성 집단($n=244$)

*** $p<.001$.

이트폭력 가해의 상관은 남녀 집단에서 차이를 보였다. 남성 집단의 경우, 관계 내 지각된 권력이 데이트폭력 가해($r_{남}=.25,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여성 집단의 경우, 관계 내 지각된 권력과 데이트폭력 가해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 검증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분노, 관계 내 지각된 권력, 데이트폭력 가해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고 효과크기(Cohen's d)를 분석하였다(표 2 참조). 분석 결과, 남성은 여성에 비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t=-1.16, p<.01, d=0.11$)와 관계 내 지각된 권력($t=-10.33, p<.01, d=0.96$)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더 많이 지각할 뿐 아니라, 관계 내에서 자신의 권력 수준이 더 높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이때 부모의 심리적 통제($d=0.11$)는 작은 효과크기 그리고 관계 내 지각된 권력($d=0.96$)은 큰 효과크기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데이트폭력 유형별로 남녀 간 가해 행동의 빈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표 2 참조). 신체적 폭력($t=1.25, p<.05$)과 성적 폭력($t=1.81, p<.01$)에서는 남자가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효과크기는 0.20 이하로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심리적 폭력($t=-.17$)에서 성차는 없었으며, 전체 데이트폭력 가해($t=.67$)에서도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분노, 데이트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관계 내 지각된 권력과 성별의 조절된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분노를 통해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이 관계 내 지각된 권력의 수준과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18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참조).

먼저,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분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B=.61, t=27.086, p<.001$), 분노는

표 2.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평균 차이

	$M(SD)$		$t(df)$	Cohen's d
	남성(n=211)	여성(n=244)		
부모의 심리적 통제	33.94(13.15)	35.55(16.26)	-1.16**(451.03)	0.11
분노	18.18(6.82)	18.99(7.59)	-1.19(453)	0.11
관계 내 지각된 권력	76.57(19.55)	97.23(23.14)	-10.33**(452.77)	0.96
전체 데이트폭력 가해	34.04(15.91)	33.09(14.23)	.67(453)	0.06
심리적 폭력	19.11(8.64)	19.24(8.05)	-.17(453)	0.02
신체적 폭력	9.70(5.32)	9.09(4.88)	1.25*(430.04)	0.12
성적 폭력	5.24(3.07)	4.75(2.53)	1.81**(408.06)	0.18

** $p<.01, *p<.05$.

표 3. 조건부 과정분석의 회귀계수

종속변인: 분노					
	B	SE	t	95% CI	
				lower	upper
부모의 심리적 통제	.61	.02	27.086***	.57	.66
$R^2 = .618, F(1,453)=733.630***$					
종속변인: 데이트폭력 가해					
	B	SE	t	95% CI	
				lower	upper
부모의 심리적 통제	.29	.04	7.251***	.21	.37
분노	.69	.19	3.575***	.31	1.07
관계 내 지각된 권력	.12	.08	1.465	-.04	.27
분노 × 관계 내 지각된 권력	-.07	.04	-1.465	-.15	.02
성별	-.72	.46	-1.561	-1.62	.19
분노 × 성별	.60	.26	2.294*	.09	1.11
관계 내 지각된 권력 × 성별	.17	.10	1.718	-.03	.37
분노 × 관계 내 지각된 권력 × 성별	-.15	.06	-2.668**	-.25	-.04
$R^2 = .498, F(8,446)=52.208***$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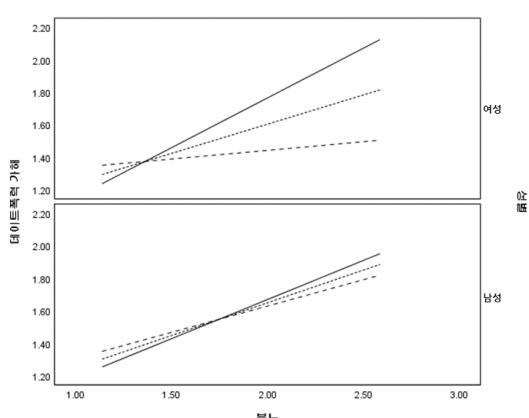


그림 2. 분노, 관계 내 지각된 권력, 성별의 조건부 상호 작용 그라프

데이트폭력 가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69$, $t=3.575$, $p<.001$). 또한 분노×관계 내 지각된 권력 ×성별의 삼원상호작용 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15$, $t=-2.668$, $p<.01$). 이때 삼 원상호작용은 데이트폭력 가해 변량의 0.8%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전체 모델이 유의하였다 ($F(1, 446)=7.118$, $p=.008$). 세 변수의 조건부 상호 작용에 관한 그래프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데이트폭력 가해에 대한 분노, 관계 내 지각된 권력, 성별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른 지각된 권력의 조건부 조절효과를 검정하였다(표 4 참조). 이에 따르면 남성일 경우 관계 내 지각된

표 4. 성별에 따른 조건부 조절효과 검정 결과

성별	B	F	df1	df2	p
남성	-.07	2.234	1	446	.136
여성	-.21	41.724	1	446	.000

표 5. 두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른 조건부 효과의 유의성 검정 결과

조절변인		B	SE	95% CI	
관계 내 지각된 권력	성별			lower	upper
3.19	남성	.48	.08	.33	.63
3.19	여성	.61	.08	.45	.78
4.38	남성	.40	.07	.27	.53
4.38	여성	.36	.06	.24	.48
5.58	남성	.32	.09	.14	.50
5.58	여성	.11	.06	-.02	.23

권력이 분노와 데이트폭력 가해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았지만, 여성일 경우 관계 내 지각된 권력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B=-.21$, $F=41.724$, $p<.05$). 또한 두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른 조건부 효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조건부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던 여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관계 내 지각된 권력이 강할수록 조건부 효과가 크게 감소하였고,

특히 여성의 관계 내 지각된 권력이 평균보다 높을 때에는 95%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고 있어 조건부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관계 내 지각된 권력의 수준과 성별이 분노와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조건부 간접효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여성의 경우, 관계 내 지각된 권력이 강할수록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분노를 거

표 6. 두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정 결과

조절변인		B	Boot SE	95% CI	
관계 내 지각된 권력	성별			lower	upper
3.19	남성	.29	.06	.19	.40
3.19	여성	.37	.07	.24	.53
4.38	남성	.25	.04	.16	.33
4.38	여성	.22	.05	.12	.32
5.58	남성	.20	.06	.07	.30
5.58	여성	.07	.04	-.01	.14

쳐 데이트폭력 가해를 예측하는 간접효과가 크게 감소하며, 관계 내 지각된 권력이 평균보다 1 표준 편차 높을 때에는 간접효과가 아예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남성의 경우, 관계 내 지각된 권력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인한 분노가 항상 데이트폭력 가해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조절된 조절된 매개지수를 분석한 결과(표 7 참조),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 내 지각된 권력과 성별에 의한 조절된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분노를 통해 데이트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관계 내 지각된 권력의 수준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른 조건부 조절된 매개지수를 분석한 결과(표 8 참조), 여성의 경우에만 95%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았다. 즉, 여성일 경우에만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분노를 거쳐 데이트폭력 가해로 이어질 때 관계 내 지각된 권력의 수준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는 조절된 매

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하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많이 경험할수록 쉽게 분노를 느끼게 되며 분노가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은 관계 내 지각된 권력의 수준과 성별에 따라 다르게 변화한다. 이때 남성은 관계 내 지각된 권력의 모든 수준에서 분노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으며, 매개효과의 크기가 관계 내 지각된 권력 수준이 낮아질수록 더 커지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즉, 남성의 경우 관계 내 지각된 권력의 수준과 상관없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분노를 거쳐 데이트폭력 가해에 일관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설명한다. 반면, 여성은 관계 내 지각된 권력 수준이 평균이거나 평균보다 낮을 때에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분노의 증가를 예측하고 데이트폭력 가해로 이어지는 간접효과가 유의한 반면, 관계 내 지각된 권력 수준이 평균보다 높을 때에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즉, 여성의 경우, 연인관계 내 자신의 권력이 약하다고 지각하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인한 분노가 데이트폭력 가해로 더 강하게 이어지는 반면, 자신의 권력이 평균보다 높다고

표 7.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조절된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정 결과

조절된 조절된 매개지수	Boot	95% CI	
	SE	lower	upper
-.09	.04	-.17	-.01

표 8. 성별에 따른 조건부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정 결과

성별	조절변인에 의한 조건부 조절된 매개지수	Boot	95% CI	
		SE	lower	upper
남성	-.04	.029	-.10	.01
여성	-.13	.027	-.19	-.08

지각하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분노를 거쳐 데이트폭력 가해로 이어지는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대인관계의 확장에 따라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며,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가 중요해지는 초기 성인기를 대상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분노를 거쳐 데이트폭력 가해를 예측하는 관계를 관계 내 지각된 권력과 성별이 조절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주요 변인들에서 성차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 내 지각된 권력 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관계 내 지각된 권력을 더 많이 지각하고 이러한 성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연인 관계에서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점차 약화되고 관계 내 권력과 주도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Cercone et al., 2005). 기존의 가부장제 이론(patriarchy theory)에 따르면, 남성이 관계에서 더 많은 권력을 지니며, 이로 인해 여성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기의 여성들이 오히려 연인관계 내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권력을 지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연인관계에서의 주도권과 의사결정권이 더 이상 성별에 따라 고정되지 않으며, 여성들의 변화된 사회적 위상을 반영하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데이트폭력 가해의 양상 변화와도 연결될 수 있다. 이때 데이트폭력 가해에서

성차를 살펴본 결과, 신체적 폭력과 성적 폭력 가해는 예상했던 대로 남성에게서 더 많이 발견되었으나, 그 효과크기가 상당히 작아서 주목할 만한 차이로 보기는 어려웠다. 심리적 데이트폭력은 다른 데이트폭력 유형과 흔히 동반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더 심각한 데이트폭력의 전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Stets & Henderson, 1991), 보통 여자가 더 많이 심리적 데이트폭력을 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달리, 본 연구결과에서는 성차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전체 데이트폭력에서도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최근 선행연구들이 전통적인 가부장제 이론과 달리,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서 성차가 없거나 (Straus, 2004) 오히려 여성의 더 높은 비율로 가해하는 경우도 있음을 보고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Chan, 2011).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약화되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더 이상 신체적, 성적 폭력이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고, 남성도 여성만큼 심리적 폭력을 하는 등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분노를 거쳐 데이트폭력 가해로 이어지는 간접효과가 관계 내 지각된 권력의 수준에 따라 조절되고, 이러한 조절효과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지지되었다. 남성의 경우 지각된 권력의 수준과 무관하게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항상 분노를 통해 데이트폭력 가해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관계 내 권력이 높아질수록 간접효과가 약해졌고, 평균보다 더 높게 지각하게 되면 아예 유의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은 관계 내 지각된 권력 수준이 낮을 경우 자신의 권력을 되찾기 위해 폭력을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여성은 관계 내 지각된 권력 수준이 높을 경우 자신의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더 많이 사용함을 보여주었던 서구 문화권의 선행연구(Cross et al., 2019)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징을 고려하여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는 집단 주의적 문화와 전통적 성역할이 결합되어 있는 사회적 배경을 지니고 있으며, 가족과의 유대감 및 의존성이 높아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부모의 통제나 기대가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녀의 감정조절 및 대처방식,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가능성성이 크다. 가부장적이며 전통적인 남성성 규범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는 기존의 성역할 사회화에 근거하여, 남성이 자신이 지각하는 관계 내 권력 수준과는 무관하게 여성은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 수단으로서 일관되게 공격성을 표출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인해 내재화된 분노를 관계 내에서 자신의 지위와는 상관없이, 남성의 통제 하에 있으며 남성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믿는 여성은 향해 분출하여, 우리 사회의 남성적 성역할 규범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Archer, 2004).

한편, 관계 내 지각된 권력이 강할 때 자신의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데이트폭력 가해를 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던 서구 문화의 여성들과 달리 한국의 경우, 여성의 관계 내 지각된 권력 수준이 낮을 때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인한 분노가 데이트폭력 가해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관계는 지각된 권력 수준이 낮을수록 더욱 강력하였다. 한국의 여성들은 힘의 불균형에 의해 축적된 좌절감과 무력감을 자기 방어적 폭력으로 분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신의 지위 확보를 위해 노력

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계 내 권력을 낮게 지각하는 남녀 모두 자신이 원하는 만큼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여기며 불만과 분노가 누적되고 결국 연인관계 내 갈등상황에서 폭력적 행동으로 표출되기 쉽다(Baumeister et al., 1996). 그동안 한국문화 속에서 여성은 전통적인 성역할 사회화에 따라 남성에게 순응하고 갈등상황에서도 자신의 주장과 감정을 억누르며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겨져 왔으며(김지영, 김기범, 2005), 만성적으로 억눌린 분노는 신체적 증상을 동반하는 화병으로 표출되곤 하였다(박선정, 최은영, 2014). 본 연구의 *t* 검정 결과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부모로부터 심리적 통제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여성으로 하여금 울분을 쌓게 만들고 억눌린 감정이 결과적으로 연인관계에서 데이트폭력을 행사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에서도 여성의 순응적인 성역할이 변화되기 시작하며, 관계 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됨에 따라 여성 역시 관계 내에서 권력을 약하게 지각할 때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연인관계 내 권력 균형을 통해 억압적인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시도를 지속하는 것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Ridgeway & Correll, 2004). 실제로 본 연구에서 여성은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관계 내 지각된 권력을 더 높은 수준으로 보고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연인관계에서 여성들이 자신을 점차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주체로 인식해가고 있을 뿐 아니라, 관계 내에서 주도성, 의사결정권 등이 없다고 지각할 경우 부당함을 느끼고 부적응적인 갈등 대처방식으로서 폭력을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여성의 관계 내 지각된 권력 수준이 매우

높을 때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분노에 영향을 미쳐 데이트폭력 가해를 하게 되는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 이는 여전히 남아 있는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과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즉 한국 여성은 높은 수준의 권력을 지각할 때 서구의 여성들처럼 자신의 분노를 폭력으로 표출하는 대신에, 여성의 공격성이나 폭력에 대한 한국 사회의 부정적 인식에 반하여 굳이 폭력적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관철할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높은 권력을 지닌 개인은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더 잘 통제할 수 있으며 권력이 유지될 것이라는 안정감으로 인해 갈등상황에서도 폭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조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nderson & Galinsky, 2006). 한국 여성들은 관계 내에서 훨씬 더 많은 주도권과 힘을 갖고 있다고 느낄 경우,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인해 고착된 분노 성향에도 이를 파트너에 대한 폭력적 행위로 표출하지는 않으며, 더 건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분노가 데이트폭력 가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자녀 중심의 가정기반 개입과 분노를 인지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교육 및 훈련이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전략임을 강조한다. 먼저, 부모가 자신의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철회하거나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등의 심리적 통제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건강한 양육방식에 대한 교육과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남성의 경우 관계 내 지각된 권력 수준과 무관하게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인한 분노가 데이트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편,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인한 만성

적인 분노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개입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지행동적 접근을 통해 자신을 분노하게 만든 비합리적이거나 왜곡된 신념에 대해 모니터링하여 수정할 수 있게 돋거나, 마음챙김 훈련을 통해 분노를 느낄 때 이를 바로 알아차리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Hofmann et al., 2012).

더 나아가, 관계 내 지각된 권력이 성별에 따라 달리 작용한다는 결과에 기반하여, 초기 성인기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관계 내 권력 역학을 다루는 갈등 해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때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을 강조하여, 남성의 경우 기존의 전통적인 남성성 규범에서 벗어날 수 있게 새로운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폭력 없이 관계에서의 권력을 재구성하고 긍정적인 연인관계를 구축하는 대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남성 참여자들은 관계 내에서 여성에 비해 자신의 지위나 영향력이 더 낮다고 지각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자신을 전통적 성역할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심리적 고통과 긴장을 경험하는 남성들이 자신의 부정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공격성을 표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Reidy et al., 2015)를 고려하여 효과적 정서조절전략을 학습시키는 것은 특히 중요할 수 있다. 한편, 여성의 경우, 관계 내 지각된 권력을 낮게 지각할 때에만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인한 분노가 데이트폭력 가해로 이어졌던 결과를 고려하여, 여성들에게는 관계에서의 부당함에 대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건강하게 표출하는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관계 내 문제를 비폭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갈등 대처 전략을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데이트폭력 가해를 개인 내적, 환경적

측면뿐 아니라 대인 관계적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차별성을 지닌다. 둘째, 본 연구는 데이트폭력의 관계적 속성에 주목하여 관계 내 지각된 권력이라는 변인을 소개함으로써 데이트폭력 연구를 확장시키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관계 내 지각된 권력은 국내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한 차례 논의된 바 있다(임성문, 2020). 셋째,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의 한국 여성들이 관계 내에서 남성에 비해 훨씬 더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느낄 뿐 아니라, 데이트폭력 가해에서 성차가 유의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어 변화된 시대상을 보여주었다는 특징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남녀에 따라 데이트폭력 가해의 기제가 다를 수 있고 개입 방법 역시 이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입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점이 있는데, 첫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데이트폭력 가해의 평균점수가 1~5점 척도 상에서 1.52라는 낮은 수준을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 표본이 폭력 성 수준이 낮은 집단에 치우쳐 있을 가능성성이 있으므로 결과의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설계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추후 종단 연구로 변인 간 관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데이트폭력 가해를 분석하였음으로, 추후 다문화적 비교 연구를 통해 데이트폭력 가해의 요인을 다각적으로 탐구하고 개입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 가해를 이성애적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성적 지향에 따른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 소수자의 입장에서도 데이트폭력 가해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데이트폭력 가해를 심리적, 신체적, 성적 폭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 신체적, 성적 폭력에서의 성차 역시 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고 심리적 폭력에서는 성차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 가해를 하위유형별로 구분하여 동일한 관계 구조가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참고문헌

- 경찰청 (2022). **치안전망 2023.** 서울: 치안정책연구소.
- 김경신, 김정란 (1998).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 행동과 관련 변인. **生活科學研究**, 8, 1-15.
- 김래은, 구상미, 최선미 (2020). 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및 데이트폭력 인식의 차이.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7), 244-254.
- 김지영, 김기범 (2005). 한국여성에게 적용되는 사회문화적 규범의 형성과 심리적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2), 157-171.
- 남귀숙 (2018).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 폭력 가해와의 관계: 역기능 및 기능적 분노표현의 매개효과.**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지혜, 정혜정 (2015). 대학생이 지각하는 성장기 폭력 경험과 폭력허용도 및 데이팅 폭력의 관계. **가족과 가족치료**, 23(4), 627-653.
- 박선정, 최은영 (2014). 중년 여성의 화병과 우울 및 삶의 질과의 관계. **아시아여성연구**, 53(2), 167-187.
- 서경현 (2009). 이성관계에서 행해지는 데이트 폭력에 관한 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4), 699-727.
- 신현숙, 곽유미, 김선미 (2012). 청소년이 지각한 통제적 양육행동과 공격성의 관계: 우울과 역기능적 충동성의 중다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347-366.
- 안귀여루 (2006).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심리 사회적 위험 요인들에 대한 연구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4), 709-726.
- 양명희, 김은진 (2007). 청소년의 분노와 자기개념 명확성, 성격 특성과의 관련성 탐구. **한국청소년 연구**, 18(1), 163-184.
- 윤혜영, 강지현 (201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 태도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2), 405-423.
- 이영돈 (2018).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연구. **경찰법연구**, 16(1), 151-178.
- 이홍, 김은정 (2012). 청소년의 공격성 하위 유형에 따른 인지 및 정서 특성. **청소년학연구**, 19(1), 227-250.
- 임성문 (2020).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데이트폭력의 관계: 지각된 권력과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조절효과. **사회과학연구**, 37(2), 179-216.
- 최명진, 김은정 (2018). 심리적 통제척도 (PCS-YSR) 의 타당성 연구: 대학생을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34(2), 51-69.
- 한덕웅, 전겸구, 이장호 (1997). 건강: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60-78.
- 홍영오, 연성진, 주승희 (2015).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491.
- Anderson, C., & Galinsky, A. D. (2006). Power, optimism, and risk taking.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6(4), 511-536.
<https://doi.org/10.1002/ejsp.324>
- Anderson, K. L., & Umberson, D. (2001). Gendering violence: Masculinity and power in men's accounts of domestic violence. *Gender & Society*, 15(3), 358-380.
<https://doi.org/10.1177/089124301015003003>
- Archer, J. (2000).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partner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6(5), 651-680.
<https://doi.org/10.1037/0033-2909.126.5.651>
- Archer, J. (2004).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in real-world settings: A meta-analytic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8(4), 291-322.
<https://doi.org/10.1037/1089-2680.8.4.291>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 theory. Prentice-Hall.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https://doi.org/10.2307/1131780>
- Baumeister, R. F., Smart, L., & Boden, J. M. (1996). Relation of threatened egotism to violence and aggression: the dark side of high self-esteem. *Psychological Review, 103*(1), 5-33.
<https://doi.org/10.1037/0033-295x.103.1.5>
- Berkowitz, L. (1993). Pain and aggression: Some findings and implications. *Motivation and Emotion, 17*(3), 277-293.
<https://doi.org/10.1007/bf00992223>
- Bettencourt, B., Talley, A., Benjamin, A. J., & Valentine, J. (2006). Personality and aggressive behavior under provoking and neutral condition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32*(5), 751-777.
<https://doi.org/10.1037/0033-2909.132.5.751>
- Burger, J. (2006). Bioindicators: A review of their use in the environmental literature 1970-2005. *Environmental Bioindicators, 1*(2), 136-144.
<https://doi.org/10.1080/15555270600701540>
- Cate, R. M., Henton, J. M., Koval, J., Christopher, F. S., & Lloyd, S. (1982). Premarital abuse: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Issues, 3*(1), 79-90.
- <https://doi.org/10.1177/019251382003001006>
- Cercone, J. J., Beach, S. R., & Arias, I. (2005). Gender symmetry in dat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does similar behavior imply similar constructs?. *Violence and Victims, 20*(2), 207-218.
<http://doi.org/10.1891/vivi.2005.20.2.207>
- Chan, K. L. (2011). Gender differences in self-report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6*(2), 167-175.
<https://doi.org/10.1016/j.avb.2011.02.008>
- Chao, R. K., & Aque, C. (2009). Interpretations of parental control by Asian immigrant and European American yout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3*(3), 342-354.
<https://doi.org/10.1037/a0015828>
- Cross, E. J., Overall, N. C., Low, R. S., & McNulty, J. K. (2019). An interdependence account of sexism and power: Men's hostile sexism, biased perceptions of low power, and relationship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7*(2), 338-363.
<https://doi.org/10.1037/pspi0000167>
- Dardis, C. M., Dixon, K. J., Edwards, K. M., & Turchik, J. A. (2015). An examination of the factors related to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among young men and women and associated theoretical explanations: A review of the literature.

- Trauma, Violence & Abuse*, 16(2), 136-152.
<https://doi.org/10.1177/1524838013517559>
- Denson, T. F., DeWall, C. N., & Finkel, E. J. (2012). Self-control and aggressio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1(1), 20-25.
<https://doi.org/10.1177/0963721411429451>
- Dutton, D. G., & Nicholls, T. L. (2005). The gender paradigm in domestic violence research and theory: Part 1-The conflict of theory and data.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0(6), 680-714.
<https://doi.org/10.1016/j.avb.2005.02.001>
- Eckhardt, C. I., Kassinove, H., Tsytsarev, S. V., & Sukhodolsky, D. G. (1995). A Russian version of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Preliminary data.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4(3), 440-455.
https://doi.org/10.1207/s15327752jpa6403_4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Vol. 2). Norton.
- Farrell, A. K., Simpson, J. A., & Rothman, A. J. (2015). The relationship power invento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Personal Relationships*, 22(3), 387-413.
<https://psycnet.apa.org/doi/10.1111/pere.12072>
- Gordis, E. B., Granger, D. A., Susman, E. J., & Trickett, P. K. (2006). Asymmetry between salivary cortisol and -amylase reactivity to stress: Relation to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s. *Psychoneuroendocrinology*, 31(8), 976-987.
<https://doi.org/10.1016/j.psyneuen.2006.05.010>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ress.
- Hines, D. A., & Douglas, E. M. (2014). Women's use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gainst men: Prevalence, implications, and consequences. In J. M. Hamel & T. L. Nicholls (Eds.), *Female Offender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pp. 26-40). Routledge.
- Hofmann, S. G., Asnaani, A., Vonk, I. J., Sawyer, A. T., & Fang, A. (2012). The efficacy of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A review of meta-analyse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6, 427-440.
<https://doi.org/10.1007/s10608-012-9476-1>
- Hunnicutt, G. (2009). Varieties of patriarchy and violence against women: Resurrecting "patriarchy" as a theoretical tool. *Violence Against Women*, 15(5), 553-573.
<https://doi.org/10.1177/1077801208331246>
- Johnson, M. P. (2006). Conflict and control: Gender symmetry and asymmetry in domestic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12(11), 1003-1018.
<https://doi.org/10.1177/1077801206293328>
- Kline, R. B. (2011). 26 Convergen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 multilevel modeling. In M. Williams & W. P. Vogt (Eds.), *The SAGE handbook of innovation in social research methods* (pp. 562-589). SAGE Publications.
- Lacey, K. K., McPherson, M. D., Samuel, P. S., Powell Sears, K., & Head, D. (2013). The impact of different type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on the mental and physical health of women in different ethnic group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8(2), 359-385.
<https://doi.org/10.1177/0886260512454743>
- Langhinrichsen-Rohling, J., McCullars, A., & Misra, T. A. (2012). Motivations for men and women's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petration: A comprehensive review. *Partner Abuse*, 3(4), 429-468.
<https://doi.org/10.1891/1946-6560.3.4.429>
- Leonard, K. E., & Senchak, M. (1993). Alcohol and premarital aggression among newlywed couple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Supplement*, 11, 96-108.
<https://doi.org/10.15288/jasas.1993.s11.96>
- Martín-Lanas, R., Osorio, A., Anaya-Hamue, E., Cano-Prous, A., & de Irala, J. (2021). Relationship power imbalance and known predictor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couples planning to get married: A baseline analysis of the AMAR Cohort Stud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6(21-22), 10338-10360.
<https://doi.org/10.1177/0886260519884681>
- Messerschmidt, J. W. (2000). Becoming "real men" adolescent masculinity challenges and sexual violence. *Men and Masculinities*, 2(3), 286-307.
<https://doi.org/10.1177/1097184X00002003003>
- Nelson, D. A., & Crick, N. R. (2002).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Implications for childhood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B. K. Barber (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p. 161-189).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ostmus, J. L., Plummer, S. B., McMahon, S., Murshid, N. S., & Kim, M. S. (2012). Understanding economic abuse in the lives of survivo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7(3), 411-430.
<https://doi.org/10.1177/0886260511421669>
- Reidy, D. E., Smith-Darden, J. P., Cortina, K. S., Kernsmith, R. M., & Kernsmith, P. D. (2015). Masculine discrepancy stress, teen dating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perpetration among adolescent boy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6(6), 619-624.
<https://doi.org/10.1016/j.jadohealth.2015.02.009>
- Ridgeway, C. L., & Correll, S. J. (2004). Unpacking the gender system: A theoretical perspective on gender beliefs and social relations. *Gender & Society*, 18(4), 510-531.

<https://doi.org/10.1177/0891243204265269>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 (Ed.). *Health Psychology: Individual differences and stress* (pp. 89-108). Springer.

Stets, J. E., & Henderson, D. A. (1991). Contextual factors surrounding conflict resolution while dating: Results from a national study. *Family Relations*, 29-36.

<https://doi.org/10.2307/585655>

Straus, M. A. (2004). Prevalence of violence against dating partners by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worldwide. *Violence Against Women*, 10(7), 790-811.

<https://doi.org/10.1177/1077801204265552>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U. E.,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https://doi.org/10.1177/0192513960170030>

01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in Early Adulthood:
The Mediating Effect of Anger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Power in Relationships and Gender**

Hannah Kim¹ Seung-yeon Lee²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M.A.¹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²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role of ang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while also investigat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power in relationships and gender. Women reported higher perceived power in relationships than men, but no gender differences were found in overall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Additionally, moderated mediation effects of perceived power and gender were significant. For m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influenced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through anger, regardless of their perceived power in relationships. In contrast, for women, this indirect effect was significant only when their perceived power in relationships was below average and was not significant when it was above average. Th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intrapersonal, environmental, and interpersonal factors in explaining dating violence and emphasize the need for gender-specific interventions.

*Keywords :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ger, Relationship Power,
Gender Differences*